

活カ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1~2  
www.fipa.or.kr

## WTO-DDA협상대비 어항개발 확대 휴양 레저산업과 연계 경쟁력 제고

매년 국가어항 2천억원 지방어항 8백억원 투자필요

해양수산부는 WTO-DDA(Doha Development Agenda) 보조금 협상타결에 대비, 어항개발 및 어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항건설 등 어업기반시설을 위한 보조금은 현재 WTO체제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WTO-DDA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가소득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고 수입개방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박탈감이 심화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항개발을 휴양·레저·관광산업 등과 연계, 수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어업의 소득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어항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2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중인 항의 완공수가 80%에 이를 때까지는 신규지정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어항은 올해 예산에서 60%를 증액한 800억원을 매년 투자, 기공사중인 어항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어촌정주어항의 경우는 개발가치가 높은 어항을 법정어항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어촌정주어항의 기준을 마련, 2010년까지 매년 227억원을 투자할 때 완공률이 50%에 도달한다고 분석,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국가어항

중 활용도가 높은 항은 입지여건,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시설개선 또는 확장으로 거점어항으로 발전시키고, 활용도가 낮은 항은 주변환경을 고려, 환경친화적인 어항으로 정비하여 관광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지정 개발항은 수산업 중심기능 외에 체험어장, 해양스포츠, 해양관광, 문화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한편, 어항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생산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항개발사업의 투자범위를 진입도로·낚시어선·유어선 부두,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부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원활치 못한데 따른 사

업실적의 저조로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권역의 광역화 및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촌계별 숙원사업 위주의 분산지원이 불가피하여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어업인의 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관리운영 및 재투자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6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기간내 완료를 목표로 2003년에 신규 20개 권역에 23억원, 계속 22개 권역에 268억원 그리고 차년도 지원예정 권역 용역비 12억원 등 총 513억원을, 2004년 이후에는 나머지 신규 24개 권역에 1,3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어촌은 3,418개의 섬, 25,962km의 해안선, 2,393km<sup>2</sup>의 갯벌, 2,243여개의 어항·포구, 1,796개의 어촌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새삼스럽게 어촌 현황의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항·어촌이 침체일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어항·어촌은 지난 1995년을 고비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생산량, 어가소득이 준데 비해 어가 부채는 거의 배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1990년 대비 어업가구수는 3분의1, 어업종사자는 무려 절반이나 줄어 들었다. 반면 50세 이상 어업종사자 비율이 60%, 그중 여성인력이 48%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항·어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천혜의 자원 보고인 동시에 무한한 개발 가능성 때문이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자원 측면 뿐만 아니라 어항·어촌은 다양한 해양성 레저시설 및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관광활동의 주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 각국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항·어촌에 관한 정책 방향은 다음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어촌 경제활동이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촌 인프라」의 핵심인 어항시설의 조기 확충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5~6개 단위의 어촌계를 1권역으로 묶어 어촌지역에 각종 숙원사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다기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어항·어촌을 단순히 고기 잡는 마을에서 벗어나 해양레저 관광기능을 갖는 관광어촌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 기본적인 방법은 널리 공개된 바 있으므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물론 그 첫 번째 자리에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유념할 사항은 어항·어촌 개발투자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한계가 있고, 상당부분 정부의 기본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려를 조바심 나게 만든다.

그 이유는 WTO-DDA의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리 수산업은 더욱 위기에 처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관할 국가어항 105개의 완공률은 64%, 시도 지방어항 317개의 완공률은 25%로 계획상 기본시설의 평균 완공률은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씩 2007년까지 투자를 확대해야 비로소 현재 숫자의 국가어항이 완공되며, 지방어항의 경우 매년 800억원 이상씩 투자해야 2010년 완공률이 75%에 겨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틀림없이 도래할 해양시대에 대비한 국가 전략 목표상 이미 지정된 국가어항의 조기 완공을 위한 확대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며, 지방어항의 예산증액은 물론, 중단됐던 어촌정주어항의 투자가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촌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어촌을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어쭙잡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밖에 못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산업 말고도 이에 못지않은 어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촌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개념의 어촌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지속적으로 면에서도 확실한 사업비 투자가 전제됨은 물론이거니와 어항·어촌·어장을 일체로 한 면(面)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에 관한 우리의 시간과 기회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어촌경제의 활성화가 수산자원이 점차 무기화 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그 위력을 발휘하려면 이 정도의 노력과 각오와 투자 없이는 전혀 불가능함을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다.

어항·어촌·어장을 면의 개발로 투자할 때

###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2008년까지 57개 마을 대상

해양수산부는 주 5일 근무제 휴가분산제 및 해안접근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유어낚시 갯벌체험 등 어촌관광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블루 투어리즘(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경영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마을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어촌체험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하는 등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8개 마을에 마을당 5억원씩의 지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49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증액 투자, 총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어촌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전국연안 시·군에

1개 마을씩 조성하되 이 사업이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도록 유도하고 어업인 자발적인 참여와 열의가 있는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 ‘어촌·어항정비법’ 제정 추진 어항기능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해양수산부는 WTO-DDA대책과 관련, 어촌개발의 투자효과를 높이고 어항수요 및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촌·어항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재원인 농특세가 2005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므로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통하여 동 사업의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부차원의 계획을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상향시키고, 또한 어항이 해양관광, 수산물의 유통가공, 어촌정주환경조성, 도시민 휴식장소 제공 등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선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촌관광리더·가이드 과정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의 관광마인드 함양과 운영능력을 함께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진국 패턴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취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법 제정시 어촌의 비전에 맞춘 정부 차원의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항 중심 어촌정주단지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다기능 종합어항건설의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간의 상호연계 분석 연구용역에 이어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2006년 완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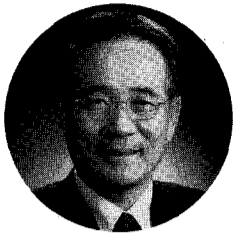
내년부터 신규 44개 권역에 1,559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UR타결과 관련, 지난 94년 농특세 신설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정

동

정

#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주재



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2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 심해저탐사장비 등 관련기술개발현황을 둘러보고 연구원들을 격려, 9일에는 전국해상노동조합 위원장단 간담회를 주재, 12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월드컵대비 항공기 해상사고 긴급구조 합동훈련에 참석, 15일에는 광양항2단계 1차부두 준공식을 개최, 18일에는 대전항에서 여객터미널 준공식을 거행하고 어업인 오찬간담회를 주재, 22일부터 26일까지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주재, 25일에는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4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초청간담회에 참석, 11일과 25일에는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강의, 15일

에는 밝은사회 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5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식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4월1일 수협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신수협운동 전개와 함께 조직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 2일에는 10층 회의실에서 어민사랑통장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4천5백만원을 어업인 무료법률서비스에 사용해 달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4월13일 범죄예방자문위원 체육행사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8일 국가신용등급 A등급 회복 축하리셉션에 참석, 9일에는 핀란드 대통령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간담회에 참석, 19일

는 국립묘지에 열린 4.19기념식에 참석, 24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월드컵성공다짐 한마음대회에 참석, 25일에는 안면도 국제박람회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5일 임직원과 함께 식목일 행사에 참여, 9일에는 광양묘도항 공사현장에 출장, 12일에는 고달 산동간도로공사현장을 방문, 16일에는 안산고잔아파트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해남양촌제 공사현장을 방문,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2일 광주권발전연구소 후원에 참석, 3일에는 희망2002이웃돕기 성금전달식에 참석, 6일에는 2002 영암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 10일에는 라이온스클럽 이사회에 참석, 11일에는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 19일에는 전남공동모금회 장애인의날 행사에 참석, 22일에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미술인작품전에 참석, 25일에는 한국뉴스타트운동본부 2002 정기총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지역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에 참석, 9일

에는 건설단체연합회 이사회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문직업인 간담회에 참석, 이어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 16일에는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 참석, 25일에는 한국건설CALS협회 시연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6일 강원도일원 공사현장에 출장,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광주MBC주관 중국 독도역사문화기행 행사에 참여,

상황실' 파견 서기관 유재만 △'2010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파견 사무관 이상길 (4.18) △국립수산물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직무대리) 곽한호 △전라남도 파견 서기관 김석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석관 장철호(4.16) ▲한국어항협회 △기술개발부장 오창택 △환경관리부과장 겸 기술개발부과장 최병원 △기술개발부 대리 남광훈 △기술홍보실 이준호 △기획관리부 신동식(4.8)

청량리지점장)의 장남 영도군이 4월 20일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 외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남화토건주식회사(회장 최상욱)
- 개인
  - ▲박해용씨(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
  - ▲유영해씨(한국어항협회 자문위원)
  - ▲조강현씨(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 ▲최병원씨(한국어항협회 환경관리부 과장)

인 사  
▲해양수산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종합

회 쪽  
▲전정진씨(전 수협중앙회

## 어항청소선 소식

5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5. 6~11 5. 20~25 5. 28~31	말도 대전 군산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5. 7~16 5. 27~31	안마 계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5. 6~11 5. 20~25	풍남, 내발 소안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5. 6~11 5. 20~25	임포 안도, 돌산	박주종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5. 6~11 5. 20~25	속천 능포, 지세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5. 6~11 5. 20~25	읍천 포항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5. 6~11 5. 20~25	남애, 사천 묵호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깨끗이 가꾼 바다! 몰래버린 낚줄 하나 풍요로운 바다목장! 바다생명 단축한다

## 새로운 형식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

### 日, 2006년까지 어항어장 1,100개 지구 정비

일본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 어항어장정비법에 의거 지난 3월 26일 각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서 중점적·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과제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질인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정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창조」, 「수산업

의 진흥을 핵으로 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형성을 지향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의 세가지를 들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목표로 「1975년대 수준을 염두에 두고 연안역의 어장회복과 수산물의 증산」, 「어촌의 집락배수에 의한 처리 인구비율을 소도시 정도로 향상」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다. 사업량은 수산물의 공급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어항

어장정비를 1,100지구에서 어장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해조장·간석을 5,000헥타 조성,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하여 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비를 430지구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종래의 장기계획과의 비교는 표 참조)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의 각의 결정 이후 농림수산대신은 다음의 요지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①이 장기계획은 작년 6월에 제정된 어항어장정비법에 입각하여 어항어장정비법의 정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금후 5개년간의 실시목표, 사업량을 정한 것이다. ②이 계획은 「새로운 어항·어항·어촌의 구조개혁계획」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③이 계획의 특이할 점은 소비자·국민의 관점에서 계획적·중점적·총괄적의 중점을 종래의 투자액에서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목표(아웃 콧 목표)로 변경하고, 사업량에 대하여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구수 등의 수치를 명시한 것이다. ④농수산으로서의 앞으로는 수산기본법 아래 이 장기계획에 잘 맞는 수산업의 구조개혁에 이바지하는 어항어장정비의 추진에 한층 노력하여 가는데 사업효과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업주체에 의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추진과 수산관계자에 의한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과 지금까지의 장기계획의 사업량의 비교

구 분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	지금까지의 장기계획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 제4차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
계획기간	5개년 (2002~2006)	8개년 (1994~200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성과에 중점화) ●연안역의 어장회복과 수산물의 증산(1975년대의 수준을 고려) ●어촌의 집락배수에 의한 처리인구비율을 소도시 정도로 끌어올림	(정성적·추상적 목표)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도이용 ·소비자의 요구에 합치한 수산물의 안정공급 등
사업량	●수산물의 공급체제의 정비 ·어항어장의 정비 1,100지구 수산동식물의 증양식의 거점 750지구 생산유통의 거점 350지구  ●어항환경의 보전·창조 ·해조장·간석의 조성면적 5,000ha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 430지구	·어항어장의 정비 1,200지구 제9차어항정비장기계획 1,200지구 수축사업 480지구 개수사업 720지구  제4차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계획지구수 설정 없음)  (계획면적수 설정 없음)  (계획지구수 설정 없음)

## 주문진항 청정항으로 탈바꿈

### 어촌관광 활성화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해양수산부는 수질오염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동해 주문진항에 국내최초로 해수교환시설을 설치, 항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했다. 2004년 2월까지 2년간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 월류제111m, 기존방파제 제거 35m, 해수교환방파제 24m, 도수로 설치162m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수교환용 도수로를 통해 연간 6,400m³ 정도의 해수가 항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약 100m³로 추정되는 주문진

항내 정체수역의 해수를 약 1주일에 1번 정도의 주기로 유입수의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이 시설의 설치공사가 준공되면 항내의 수질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영동·중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의 확장개통과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동해안 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 새로운 관광시설로 부각, 어촌관광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유입이 증

가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시설이 R/D 연구용역에 의한 것이므로 시험시공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개발 기술을 다른 항만에 적용하기 위하여 완공후의 성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의 항내수질 및 저질변화, 저서생물 서식상태 등의 환경변화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는 등 해수교환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인근 목호항 등 동해안지역의 타 항만에도 점증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1차 APEC해양장관회의' 개최

## 해양분야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상 제고 「2010 세계박람회」유치에 기여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APEC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APEC 21개 회원국의 해양관련장관들과 고위급대표, NGO대표, 해양수산업자 등을 포함한 4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및 연안자원의 지속 이용'이라는 주제아래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보호, 연안역통합관리 등 4개 의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회의의 성과

를 '서울해양선언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APEC회원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게될 '서울해양선언문(Seoul Ocean Declaration)'에는 불법어업방지 및 심해저 자원의 공동보존을 위한 국제행동 촉구와 같은 21세기 해양비전의 선포 외에도 외래종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센터 창설, 개도국의 연안역 통합관리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회의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APEC회원국간

해양협력 증진을 주도하여 해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정부가 노력중인 '2010 세계박람회'의 여수 개최와 'APEC 해양환경 훈련 및 교육센터'의 국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년 8월부터 'APEC 해양장관회의 준비사무국'을 설치하여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련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

요함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지원위원회'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전국 연안 실태조사 실시

우리나라 전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년에 걸쳐 연안의 자연환경, 사회·경제 실태, 자원이용실태, 해양환경오염 및 용도지역 지정 등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연안편람을 발간하여 해양수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행 초기단계인 연안관리법 및 연안통합관리계획

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조사 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변화발생의 원인·정도·양상, 연안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의 저감방안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 많은 응모바랍니다

한국어항협회는 선진어항어촌문화의 창달과 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로 일반국민이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주제 :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수산업 및 관광·레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품기간 : 2002. 7. 8. - 7. 11.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도착분)
- 출품규격 : 11" x 14" 칼라사진(출품표에 촬영장소, 촬영일시, 작품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명기)
- 출품료 : 1인당 10,000원 (출품수 : 제한없음)
- 심사 : 2002. 7. 18.
- 심사발표 : 2002. 7. 19. (개별통지)
- 시상일시 : 추후통보

- 시상내용
  - 금상(1점) 상패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2점) " (각 500,000원)
  - 동상(3점) " (각 300,000원)
  - 가작(5점) 상장 및 상금(각 100,000원)
  - 장려상(5점) " (각 100,000원)
  - 입선(100점) 상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접수처
- 주소 : 110-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 전화번호 : (02)3673-2851(담당자 이준호)
- 기타
  - 입상·입선작은 본회에 귀속되며, 낙선작은 작품집포함 개별 반송함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입상·입선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인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 바다목장 전국적으로 확대

### 해역별 후보지 선정 위한 기초조사 착수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동해·제주 관광형 바다목장, 서해 갯벌형 바다목장 개발을 위해 후보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98년 처음 시작한 경남 통영시범 바다목장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2001년부터 후보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307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동·서·제주 해역에 그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각각 1개소의 바다목장 개발을 위해 후보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영과 여수 바다목장이 자원증식형 개념의 목장이라면 동해·제주해역은 관광형으로 서해는 갯벌형 목장으로 개발하여 2010년까지 1,04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 연안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을 대상으로 자원의 방류에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생산 시스템으로서, 자연생태계를 적극 보전하면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레저 및 관광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해양문화 공간과 휴식처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바다 유료 낚시터 개발

전남 장흥군은 청정해역인 득량만에 유료 낚시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장흥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바다 위에 각각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춘 바지선(9x12m) 2척을 띄워 콘도식 낚시터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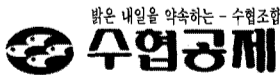
장흥군은 지난달 사업자로

선정된 관산면 사금, 회진면 대리 등 2개 어촌계에 1,500만원(자체부담 1,500만원)을 보조해 다음달까지 바지선을 구입토록 하고 오는 6월부터 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인구 급증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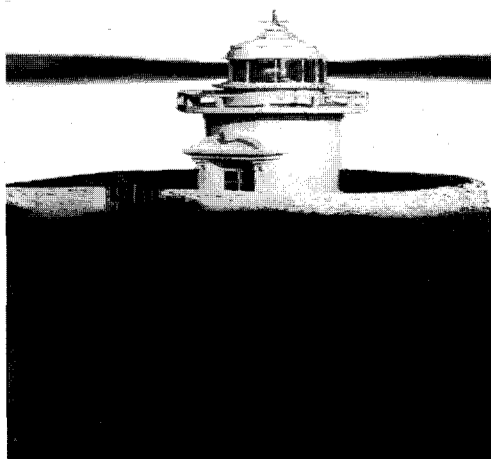
장흥군 관내 특량만 해역은 매년 5~11월 낚시철이면 감성돔과 농어, 우럭 등이 몰려 인근 광주를 비롯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몰리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바지선 이용료는 하루 2만~3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다른 어촌계에도 적극 권장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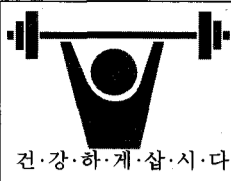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진·강·하·계·삼·시·다

## 봄철 눈 건강관리

봄은 눈(目)에게 '시련의 계절'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각종 안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한다.

주범은 황사와 꽃가루. 특히 중국에서 찾아온 '불청객' 황사는 각종 중금속 성분과 먼지가 섞여 있어 눈 건강을 위협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황사는 예년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4~5월에 절정을 이루는 꽃가루는 각종 알레르기성 눈병을 일으킨다.

### ◆ 봄철 눈 질환

봄철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눈 질환으로는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각막궤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황사는 자극성 결막염과 각막염을 일으키는 요인. 황사에 섞인 철, 규소, 구리, 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과 대기중 오염 물질이 눈 속에 들어가면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세가 나타난다.

손으로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에 감염돼 각막염 등을 일으킨다.

또 봄철에 흔해지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꽃가루 등은 알레르기성 눈병을 유발한다.

가려운 증상 외에 재채기를 하고 눈물이 많이 나며 눈이 통통 붓는 것이 특징.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출이 잦아지면

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화학성 결막염 환자도 증가한다.

### ◆ 눈 질환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다.

외출을 하더라도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눈을 보호하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렵거나 따갑다고 눈을 비비는 것은 절대 금물. 식염수나 미지근한 물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좋다.

평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황사와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만큼은 안경을 쓰도록 한다.

황사에 함유된 중금속과 먼지는 콘택트렌즈 표면에 달라붙어 결막과 각막을 자극, 결막염을 일으키거나 각막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눈을 뻑뻑하게 해 콘택트렌즈 착용도 어렵게 만든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눈을 자주 깜박여 눈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

눈물은 세균을 죽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지만,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이 같은 기능이 떨어져 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기 때문.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② 처리말뚝의 품질관리(시공시) 처리말뚝의 품질, 강도는 시멘트슬러리의 혼련의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a. 관입·인발속도의 관리

○ 관입속도(속도계)

심층혼합처리기는 전동 및 유압펌프에 의하여 구동하고 토질조건에 따라서 사질층에 관입하거나 단단한 지층 등에 선단부를 착저시켜야 한다. 처리기가 이와같은 단단한 층에 닿으면 굴착저항이 증대하여 큰 굴착토크를 필요로 하므로 전력의 부하나 유압이 상승한다. 대체로 점성토중에 관입시의 관입속도는 0.5~1.5m/분정도 이므로 속도계로 관리한다.

○ 인발속도(속도계)

심층혼합처리의 경우 교반의 회전수와 인발속도가 처리말뚝의 강도 및 품질에 크게 관계된다.

대체로 관입 및 인발속도는 0.5~1.0 m/min 정도이고 속도계로 관리한다.

b. 교반의 회전수의 관리(회전계)

회전수 관리는 회전계로 한다.

심층혼합처리공법의 경우 교반혼합의 정도가 개량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교반의 회전수와 인발속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교반의 회전수는 30~80rpm 정도, 인발속도는 0~3m/min 정도까지 가능하나, 교반의 회전수는 가급적 크고 인발속도는 작을수록 교반혼합의 정도가 커지고 시멘트와 점성토가 잘 혼합되어서 강도의 불균형도 적고 개량강도도 커진다.

인발속도가 개량강도에 대하여 영향

을 미친 사례를 표 4.5.2에 제시한다.

c. 처리기 선단부 관입깊이의 관리  
처리말뚝 조성시 중요한 것은 개량깊이와 개량선단의 확인 및 처리조성 중의 처리기 선단의 꺾적이다.

GL계(관입기록계)로 해면에서 처리기 선단부까지의 거리를 조위보정하여 처리기 선단부의 깊이를 인식하고, 규정깊이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시멘트 슬러리량을 투입함으로써 처리말뚝의 깊이 등을 확보한다.

GL계로 처리기의 선단 깊이는 확인할 수 있으나, 처리기 선단이 목적으로 하는 지반에 정확히 착저하였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대체로 굴착토크의 증대로 인한 전력부하의 급상승이나 유압의 급상승을 확인함으로써 처리기 선단의 관입정지선으로 하고 있다.

처리기 선단의 관입정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가급적 시험타설을 하여 지지반 위치에서의 각 계기의 값을 확인해 두고, 본 공사에 참고로 한다.

○ 심층혼합처리공법의 경우 점성토지반에서 즉시지반(암반 등)이 되는 일이다.

○ 처리기 선단이 점성토지반(연암의 파쇄암)에 도달후, 계속해서 3분 정도의 관입작업으로 처리기의 모터가 늘어붙는 일이 있다.

③ 처리말뚝의 품질관리(시행후)

처리말뚝의 품질관리는 확인보링에 의한다.

(2) 규격 관리

규격 관리에서는 처리말뚝의 ①타설위치 ②연직도 ③타설깊이 ④인접말뚝과의 접합 ⑤천단고 ⑥계획지반의 착저상황 ⑦시멘트슬러리의 투입량 및 경화제의 첨가량 ⑧성토량을 확인한다.

①타설위치 ②연직도 ③타설깊이 ⑤천단고 ⑧성토량의 확인은 4.4 샌드콤팩션파일공과 같이 관리도표로 확인한다.

④인접말뚝과의 접합

타설위치와 연직도에서 인접말뚝과의 접합을 확인한다.

⑥ 계획지반의 착저상황

처리기의 매달은 하중 및 축토크의 변화에서 지지층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선단처리에 대하여는 시멘트슬러리 유량계, 처리기 축회전수계의 기록으로부터 확인한다.

표 4.5.2 인발속도에 의한 강도발생차

시험체 명칭	$\alpha$ (t/m <sup>3</sup> )	V (m/min)	pu현 (kg/cm <sup>2</sup> )	pu실 (kg/cm <sup>2</sup> )	pu현/pu실
L-2	0.070	1.0	10	15	0.67
L-3	0.070	1.5	8	15	0.53

$\alpha$ : 개량토 1m<sup>3</sup>당의 시멘트량 70kg/m<sup>3</sup>

V: 인발속도

pu현: 현장발생강도

pu실: 실내배합시험강도

### 스팸메일과의 전쟁

## 키워드의 차단으로 퇴치 가능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메일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시대의 불청객과 힘겨운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스팸 메일을 지우고, 또 지우고, 수신 거부 메일을 보내는 일을 수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팸메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이메일 이용자가 1주일 에 받는 스팸 메일은 평균 32.7개로서, 지난해에 비해 약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스팸 메일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광고' '정보' '성인광고' 등의 표시를 스팸 메일의 제목에 함께 적도록 의무화하고,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발신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수신자가 내용을 보지 않고도 메일을 삭제하거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해 자동 수신거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되었다시피 발신자들이 다양한, 때로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광고'라는 단어를 표시해 자동 필터링 되지 못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과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은 제목에 '성인광고'라고 표시만 하면 음란성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수신자가 성인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 광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팸메일을 삭제하기 위해 제목을 클릭할 경우 메일 내용의 일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낯 뜨거운 장면을 제목 밑에 띄워 네티즌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는 성인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전에 수신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책무를 강력하게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당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스팸 메일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대척마련에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다.

### ◆ 스팸메일 차단 기술

스팸메일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I사의 '이메일 셰이퍼'는 스팸메일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이메일 추출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솔루션.

게시판 자동 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개인보다는 소기업이나 기업 등 게시판 운영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J사의 '스팸스나이퍼'는 가상의 이메일을 여러 개 만들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제품.

기존의 이메일 주소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임시의 이메일 주소를 수신자마다 다르게 알려준 후, 자신의 이메일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역추적해 스팸메일 유포자를 차단해준다.

Y사의 '스팸버스터'는 개인 사용자용 제품으로 스팸메일의 일정 패턴을 등록해 필터링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달말 출시될 T사의 '스팸 브로커'는 필터링 기술을 서버에 적용하는 기업용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이다.

또한 P사의 '메일실드'는 미국 L사의 제품으로 필터링 기반의 기업용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으로 분류된다.

### ◆ 향후 전망

스팸메일 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솔루션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솔루션들의 효율성은 아직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제품들은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 스팸메일 퇴치법

아웃룩 메뉴에서 있는 필터링 기능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메일 주고받는 조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해 뒤 내가 원하지 않는 메일은 보내지도, 받

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메일의 제목이나 내용, 전송자 등을 지정해 놓으면 이를 삭제하거나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성 메일을 보내려는 기업들은 제목에 '광고' '홍보' '성인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키워드의 차단으로 등록해 놓으면 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웃룩 익스프레스 사용자라면 맨 위의 메뉴 바에서 '도구→메시지 규칙→메일' 순으로 누른다.

'제목란에 특정 단어를 포함'을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와 이동경로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메시지 본문에 특정 단어를 포함'도 클릭해 지정해두면 스팸메일은 더 정교하게 차단된다. 광고메일의 특성상 '허락없이' '불쾌' '수신거부' 등의 말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지정해주면 된다.

이메일도 필터링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스팸메일의 50% 이상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발송처가 불분명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가진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상책이다.